(全매체) 2013년 8월 20일(화) 11: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.smba.go.kr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징검 다리
중소기업청
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벤처투자과 • 과장 : 박종찬 (042-481-4416) • 사무관 : 안남우(042-481-4487)

6,000억원 규모 미래창조펀드 본격 출범

- 대기업·벤처 1세대 등이 출자, 창업·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힘 모아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은 **정부 2,000억원**과 **대규모계열집단소속 대기업, 벤처 1세대, 선도벤처기업, 연기금 등 민간의 출자**를 받아 **6,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**을 완료하고,

○ 운용사 선정 등 2~3주 동안의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, **9월 중순경부터 투자**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.

□ 우선, 펀드 출자자 **모집 초기**에는 대기업 및 **민간 출자자의 관심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**이었으나,

○ 시간이 흐르면서 **미래창조펀드 조성과 벤처·창업기업 육성 취지에 공감**하는 **대기업, 벤처 1세대 등이 늘어나기 시작**하면서,

○ 펀드조성을 시작한지 불과 **2.5개월여만에 6,000억원을 조성** 하였다.

○ 300~500억원의 평균적인 **벤처펀드 조성에도 6개월 정도 소요**되는 점을 고려하면, **민간 출자자의 상당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**라고 평가할 수 있다.

※ 민간 출자자의 요청에 따라, 보도자료에 공개된 출자자 이외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예정

□ 조성된 6,000억원은 크게 ① **벤처 1세대 등이 중심 역할**을 하는 **창업초기 분야에 2,000억원**, ② **대기업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장·후기단계에 4,000억원이 투자**된다.

□ **좀 더 세부적**으로 살펴보면, **총재원 중 2,000억원**은 민간 영역에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"**창업 3년이내 기업에 투자**"되며,

○ 특히, 네오위즈·다우기술·NHN·CyberAgent(일본계) 등 **선도 벤처기업**들이 **1,000억원 이상의 '새싹기업 키우기 펀드'를 조성**하고, 창업·성장의 노하우를 전수하는, 말 그대로 **창업초기는 벤처 1세대와 선도 벤처기업들이 주도**하는 체계이다.

○ 창업초기 투자는 모험적 투자재원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, **민간 출자자에게 펀드수익의 3%를 우선배분** 하는 등 **인센티브**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.

□ **총재원 중 4,000억원은 성장·후기단계에 투자**되며,

○ **글로벌 중견·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어려움**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**이 분야 주요 출자자인 대기업**(두산·코오롱 등) **등이 적극 나서서, 해소·지원**한다는 전략이다.

< 미래창조펀드 운용 전략 >



□ **투자분야**는 미래창조펀드의 성격에 맞게 **IT, 모바일, 헬스케어, 의료기기, M&A를 통한 업종간 융복합 등**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되,

○ 선도벤처 등 **민간 출자자가 희망**하는 투자 분야는 **우선적으로 고려**하여 **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펀드**로 운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.

○ 특히, **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을 M&A**할 경우 **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**하고, **법인세를 감면**해 주는 정책(현재 법개정중)을 추진 중에 있어, **미래창조펀드에 출자한 대기업들이 우수 창업·벤처기업을 M&A**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.

□ 그 동안 우리나라 총 벤처투자 재원의 70% 이상을 담당해 왔던 **중기청 및 한국벤처투자**(모태펀드 관리기관)는 **금번 미래창조펀드의 출범이 기존 벤처캐피탈 시장에 적잖은 변화**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, **미래창조펀드가 갖는 의미**를 설명하였다.

① 그동안 **벤처펀드 출자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대기업***들이 **벤처자금 생태계에 중요한 일원으로 참여하기 시작**했다는 점은 큰 의미이며,

- 미래창조펀드 출범을 알리는 현재에도 **유수의 대기업**들이 계열사 출자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니, **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** 하는 등 미래창조펀드 참여를 **긍정적으로 검토하고** 있어, 향후 **펀드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**도 열려있는 상황이다.

*** 모태펀드를 통해 결성된 벤처펀드 중 대기업 출자비중(%) : ('10) 6.4→('11) 7.5→('12) 0.9**

② 미래창조펀드가 가지는 **또 하나**의 중요한 의미는 **벤처·창업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육성**하기 위하여 **대기업, 선도벤처 등이 적극적인 역할**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- 실제, 벤처 1세대 및 **선도 벤처기업들도 미래창조펀드에 직접 자금을 출자**하고 있고,

- **대기업 출자자** 대부분은 모바일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창업·성장기업을 적극 발굴하고,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**노하우 전수 등을 적극 할 것**으로 알려졌다.

③ 이에, 향후 대기업 등 **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펀드 시장 형성이 더욱 탄력**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, **'13년도 2조원의 벤처펀드가 조성**되는 등 **벤처투자가 활발**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.

- 특히,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**“융자”지원 실적만을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반영**하던 것을 **“창업·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출자” 실적도 새롭게 반영**할 예정이어, 향후 대기업의 벤처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.

  * 중소·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대기업 출자실적에 대해 ‘가점’을 부여하는 방안 상정 예정(8.27,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)

□ 한정화 청장은 언론 브리핑 마무리 말을 통해,

○ “미국은 구글, 애플, 시스코 등 **대기업이 창업기업을 육성**하고, 성장 후에는 **M&A를 통해 회수(EXIT)**하는 **선순환 벤처생태계가 활성화**되어 있는 반면,

- **우리는 융자위주의 자금조달 관행, 대기업의 벤처투자 소극적 참여,** M&A 등 **회수시장 침체**로 등으로 재창업 및 재투자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“이라면서,

○ **미래창조펀드 출범을 계기**로 벤처투자 선진국인 미국과 같이 **“대기업, 선도벤처기업들이 창업·벤처기업 투자와 육성에 대한 중요한 역할**을 하고,

- **「창업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/재도전」**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는 **‘한국식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의 원년’**으로 만들어 **창조경제의 기반을 더욱 단단**하게 다져 나가도록 하겠다“고 밝혔다.

< 첨부 > 미래창조펀드 조성결과 및 운용전략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안남우 사무관(☎ 042-481-44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 첨부 >

‘미래창조펀드’ 조성 결과 및 운용전략(안)

◇ 新정부는 ‘**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벤처·창업기업 육성**’을 국정의 **핵심 기조**로 설정하였으며, 이를 위해 지난 5.15일 **‘벤처·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’방안**을 마련

◇ 5.15 대책의 핵심 과제로 **대기업, 벤처1세대, 연·기금 등의 출자를 통해 5,000억원 규모의 ‘미리창조펀드’ 조성**을 추진하여 왔음

1. 추진 배경

□ 우리나라 벤처·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보면 담보·상환 부담, 신용불량의 위험이 있는 **은행융자에 심하게 편중**되어 있어,

○ **창업에 실패할 경우 재기 및 재도전이 어려운 실정**

* 중소기업 자금조달(조원,‘11) : 은행 454.8조원(97.6%), 정책자금 4.2조원(0.9%), 벤처투자 4.7조원(1.0%)

□ 따라서,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자금지원 체계를 **‘융자’ 중심에서 ‘투자’ 중심으로 전환**하여,

○ **‘창업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/재도전’**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구현되는 **생태계 조성이 필요**

□ **新정부**는 이를 위해 지난 5.15일 **‘벤처·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’ 방안**을 마련한 바 있으며,

○ 5.15 대책의 핵심 과제로 **대기업, 연·기금 등의 출자를 통해 5,000억원 규모의 ‘미리창조펀드’ 조성**을 추진하여 왔음

2. 미래창조펀드 조성 경과

○ ‘벤처·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’에서 미래창조펀드 조성방침 확정(5.15)

○ ‘미래창조펀드 **조성계획 및 출자자 모집방안 협의**(6월 초까지)

○ **출자자* 모집**(6월 초순경부터) 및 미래창조펀드 **조성 마무리**(8월 중순경)

* 대기업, 벤처1세대, 선도 벤처기업, 중견기업 등 다양한 민간 출자자를 접촉

2. 조성 결과

□ **조성규모 : 6,000억원**

○ **민간 4,000억원** : 대기업, 벤처 1세대, 선도 벤처기업, 연·기금 등 **다양한 민간 출자자** 참여

* **출자자들의 요청**에 따라 개별 출자자 및 출자금액에 대해서는 **비공개**이며, 몇몇 대기업은 계열사간 출자협의 지연 등으로 미래창조펀드에 참여를 못함

○ **정책금융 2,000억원** : 모태펀드·정책금융공사 각각 1천억원

3. 운용 전략

□ **투자방향 : 창업초기 2,000억원, 성장·후기단계 기업 4,000억원**

○ **(창업초기) 새싹기업 펀드 1,325억원** 및 성장·후기단계 투자펀드에서 규약으로 약 15% 투자 의무화하여 2,000억원 규모 투자

- 창업초기 주요 출자자인 네오위즈 등 **선도 벤처기업들이 새싹기업 육성에 적극 역할을 수행**토록 유도

○ **(성장·후기기업)** 4,000**억원** 투자

- **글로벌 중견·대기업으로의 성장에 어려움**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**이 분야 주요 출자자인 대기업 등이 적극 나서서, 해소·지원**

< 미래창조펀드 운용 전략 >



□ 투자 분야

○ 미래창조펀드의 성격에 맞게 **IT, 모바일, 헬스케어, 의료기기, M&A*를 통한 업종간 융복합 등**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

* 대기업이 중소·벤처기업을 M&A할 경우 세제혜택 등 부여할 예정(법령 개정중)

○ 선도벤처 등 **민간 출자자가 희망**하는 투자 분야가 있을 경우 **우선적으로 고려**하여 **민간주도 벤처펀드**로 운영

< 참 고 > M&A 시 인수기업에 대한 혜택

◦ (인수대상) 벤처기업 또는 R&D 투자액이 매출액 대비 5%이상인 중소기업
+ (인수금액) 세법상 시가의 150%인 조건을 충족해야 함

◦ 주요 혜택(관련 법령 개정 중)
- 대기업 **계열사 편입 3년간 유예**
- 기술가치 금액의 10%를 **법인세에서 감면**

* 기술가치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(평가를 받은 경우) 또는 {인수가액 - (시가 ×1.3)}로 의제하되, 매수기업이 산정방법 선택

□ 펀드 형태 : KVF (벤처투자조합)

* 미래창조펀드는 중소·벤처기업 투자재원이면서 펀드 규모가 큰 점을 감안, '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'에 근거한 '벤처투자조합'으로 운용 예정

□ **펀드 존속기간** : 8년 내외

□ **투자 방법**

○ 보통주, 우선주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프로젝트 등에 투자

□ **수익 배분 : 출자 지분에 따른 배분**이 원칙

○ 다만, 모험자본 역할을 하는 창업초기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수익의 **3%까지 민간 출자자에게 우선 배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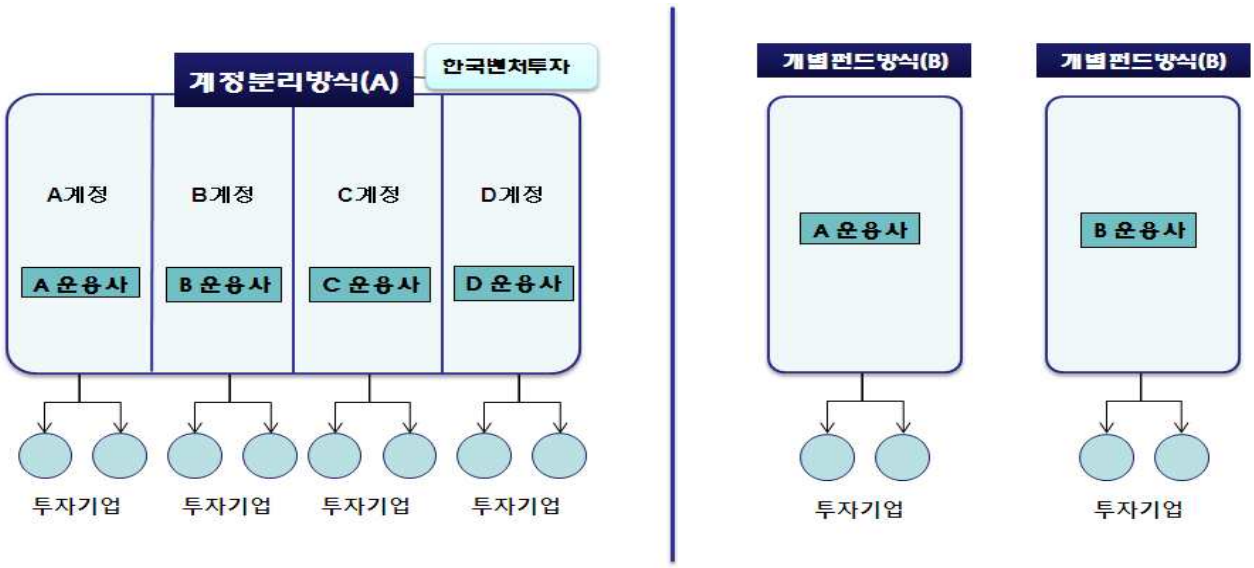
* (참고)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수익률 : 9.11%

□ **펀드운용 방식**

○ **계정분리 방식을 원칙**으로 하되, 민간 출자자가 희망할 경우 **개별펀드 방식 허용**

○ **계정분리 방식** : 한국벤처투자(모태펀드 운용기관)가 총괄 운용하되, **계정별 전담 운용사가 각 계정을 독립**적으로 운용

- **개별펀드 방식** : **개별 펀드를 운용사가 각자 독립**적으로 운용하되, 투자실적·투자제한 업종 등은 **한국벤처투자가 관리**



4. 향후 계획

○ 미래창조펀드 운용규정 등 **규정 신설**(8월말)

* **미래창조펀드는 새롭게 조성**되는 벤처펀드이기 때문에 계정별 업무집행조합원 책무, 수익배분방식 등에 대한 **규정 신설이 필요**

○ 각 계정별 및 각 펀드별 **운용사 모집 공고** (9.2~)

- **각 계정별 및 펀드별** 운용사 선정이 **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투자 개시** (9월 중순경부터)

* **펀드 규모가 크고** 계정분리 방식의 펀드 등이 **여러 개 운용**(300~500억원 규모)되기 때문에 운용사가 일괄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, **9월 중순경부터 순차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**